

한숨 돌린 완도 전복...판촉행사 성과

소비촉진 할인판매 5월까지 1,700톤 출하 산지가격 상승 예상...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국내 경기침체 등 소비 둔화로 전복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 생산원가 마저 위협을 받았던 완도 전복 양식 어업인들이 한숨을 돌렸다.

4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해 완도군공무원들이 팔을 걷고 나서 판촉활동을 벌인 결과, 5월말까지 총 1,700여 톤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6월부터는 산지 가격도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도 전복은 지난 2월 이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유통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던 전복을 다시 가두리 양식장으로 보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완도군은 지난 4월 전복산업 관련 단체, 어업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한시적으로 할인행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시적 할인행사에서는 완도군 전 공직자들과 관련 산업 단체에서 전국 지자체와 대형마트 향우회, 대형 산단 등을 찾아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펼쳤다.

할인 판촉행사를 통해 선물용 큰 전복의 경우 70%이상 소진되는 등 전복 양식 가두리에 적체됐던 상당량의 물량이 출하됐다.

한국전복산업연합회 완도군협회 양관석 회장(64)은 "완도군 공직자들이



완도의 전복유통업체에서 전복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완도군은 전복할인행사로 5월까지 1,700여톤을 판매했다.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벌인 결과이며, 우려했던 고비는 일단 넘겼다"고 밝혔다.

할인행사에 참여한 남도전복유통 김영삼씨(43)는 "택배 주문량이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다. 거래가 뜰까 걱정했는데 이번 할인행사 효과가 굉장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5월은 출하시기가 집중되고 소비 특수(설, 추석 등)마저 끊길 따라 전

복 양식 어업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시기다.

이번 할인 특판 행사는 전복 가격하락을 차단해 전복 양식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결과적으로 가격이 반등 상승하는 등 완도군 전복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박현식 완도군수 권한대행은 "전복 산업 전반에 대한 꼼꼼한 진단과 분석으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전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전복 산업 전체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이달부터 종묘, 생산, 유통, 가공 등 분야별로 단체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완도=최규욱 기자

내고장 사람들



정순주 목포 시장 권한대행은 6일 오전 9시55분 부흥산현충탑에서 열리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황인섭 영암 군수 권한대행은 5일 오후 2시 시군청 남산실에서 열리는 기찬자연휴양림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다.



이춘봉 진도 군수 권한대행은 6일 오전 10시 시군청공원층 현충탑에서 열리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다.



신안군은 최근 공연장에서 시민사회교육연구소 문미경 교육실장을 초청,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신안 공직자 대상 인권 감수성 교육

신안군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근 공연장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사회교육연구소 문미경 교육실장이 강사로 나서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군민의 인권과 공무원의 인권에 대해 강의했다.

문 실장은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직원들 간의 교류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힐링, 편견이 아닌 관심과 당연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선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할 때 요구되는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재신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무원의 인권의식이 반드시 요구된다"며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인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진도 의신면 굴 폐각 비료로 재활용

진도군 의신면이 굴 양식 중 발생된 폐각(껍데기)을 농가에 재활용으로 공급, 깨끗한 여촌마을 조성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현재 의신면에는 8개 어촌마을 250여명의 어업인들이 굴 양식을 하고 있으며, 어가당 연간 3,000~5,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굴 껍데기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높다 보니 해안가에 방치되거나 바닷가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신면사무소는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농사용 비료로 사용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굴 껍데기는 칼슘이 다량 함유돼 비료로 대체 시 밭 농작물 작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굴 폐각의 재활용 처리를 위해 굴 폐각 분쇄기 등을 지난 2001년부터 5개 어촌마을에 공급해 오고 있다. /진도=박병호 기자

신안 브랜드 쌀 '섬섬옥미' 생산 확대

지난해 조기 품질 올해 재배 면적 3배 이상 늘려

신안군은 게르마늄 토양에서 생산돼 미질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명품 브랜드 쌀 '섬섬옥미' 생산량 확대에 나섰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대도시 고소득 소비층을 겨냥해 팔림면에 109ha를 시범재배 했던 특수미 '골든퀵 2호, 진상 2호'가 조기 품질올해는 지도를 포함해 357ha까지 재배면적을 늘렸다.

이를 위해 신안군은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관내 참여농가 150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육묘, 이앙 등 비배관리 교육을 잇따라 실시했다.

또 종자 확보와 토양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비 2억9,800만원을 확보해 지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대도시 고소득 소비층을 겨냥해 팔림면에 109ha를 시범재배 했던 특수미 '골든퀵 2호, 진상 2호'가 조기 품질올해는 지도를 포함해 357ha까지 재배면적을 늘렸다. 특히 브랜드 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양곡 전문유통업체인 ㈜웰드그

린과 협약을 맺고 고가에 전량 납품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확대 재배하는 '골든퀵 2호'는 국내 중저소득층에서 개발해 특허받은 프리미엄 단일 품종으로 밥 지을 때 은은한 밥끈함이나 특질이 있다.

'골든퀵 2호'는 아밀로스(amylose) 함량이 일반 쌀 보다 낮아 건강에 좋으며 뛰어난 찰기와 윤기로 호평을 받고 있다.

유재석 친환경농업과장은 "신안 청정섬 이미지에 걸맞는 고품질의 친환경 특수미 '골든퀵 2호'와 '진상 2호'를 확대 생산해 '섬섬옥미'라는 브랜드로 판매, 신안군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안 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고정희 문화제...9일까지 해남 생가

시 전시회·다큐영화 상영·토크콘서트

1980년대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이자 여성시인인 고정희 시인의 삶과 문학 세계를 돌아보는 고정희 문화제가 지난 3일 시작돼 9일까지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 시인의 생가 일원에서 열린다.

고정희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문화제는 우리나라 여성주의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고정희 시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고 시인이 걸어왔던 삶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행사는 지난 3일 시인의 생가에서 열린 시 전시회를 시작으로 7-8일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B급 머느리' 상영과 토크콘서트가 해남읍 자연드림 2층 두드림 소극장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9일에는 시인의 묘소와 생가에서 헌화, 헌주, 헌시, 헌가 등으로 진행되는 추모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고정희 시인은 '실락원 기행', '초혼제', '지리산의 봄' 등 시집을 통해 우리



나라 여성주의 문학의 새로운 경향을 이끌었다. 고정희 시인은 '여성신문' 초대 편집장과 '또 하나의 문화' 동인 활동 등을 통해 198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나타난 페미니즘 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고정희 시인은 1948년 해남군 삼산면에서 태어났으며, 1991년 자신의 시의 모체가 되어온 지리산에서 등반 도중 실족으로 타계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목포 010-3272-2765
- 011-632-0323
- 010-3635-6777
- 신안 010-4627-1472
- 영암 010-4624-8409
- 진도 010-3624-4777
- 완도 010-5619-7020
- 해남 010-8181-2627
- 강진 010-6646-1241

클릭! 고향 소식



보성 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보성군은 최근 관내 학교 급식소 32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보성군은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2개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집중 점검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와 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성=선상희 기자



장흥 공중시설 금연캠페인

장흥군은 최근 장흥읍 일원에서 대한노인회 장흥군지부, 장흥읍 노인재능나눔 지원사업 참여자, 금연지도원, 금연서포터즈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장흥터미널-중앙로 구간에서는 금연 캠페인을,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주민 대상 금연 홍보를 실시했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금연 전략을 세워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곡성 감염병 예방 교육

곡성군 보건소의료원은 최근 원내 건강증진 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 후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소의료원은 주민들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병·의원에 포스터 부착, 리플릿 배부 등의 형태로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

곡성군 보건소의료원 관계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 진드기 기피제를 보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곡성=한정길 기자



여수 월호동 열무김치 나눔

여수시 월호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최근 직접 담근 열무김치 80통을 관내 11개 경로당과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69세대에 전달했다.

박태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꾸준히 갖겠다"고 말했다.

월호동 새마을협의회는 매년 열무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백미 10포 후원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선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